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VOL.43_2013. 08 ▶ 이창호 연구위원

I. 청소년 스마트폰이용 실태	03
II. 스마트폰중독예방대책	08
III.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대응방안	09
IV.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차단 대책	11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요약

-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3년 7월 3천 5백만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SNS 중독이나 게임중독, 사이버따돌림, 음란·유해 애플리케이션 접촉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달리 스마트폰은 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가능한 매체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매체임.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부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I . 청소년 스마트폰이용 실태

■ 스마트폰중독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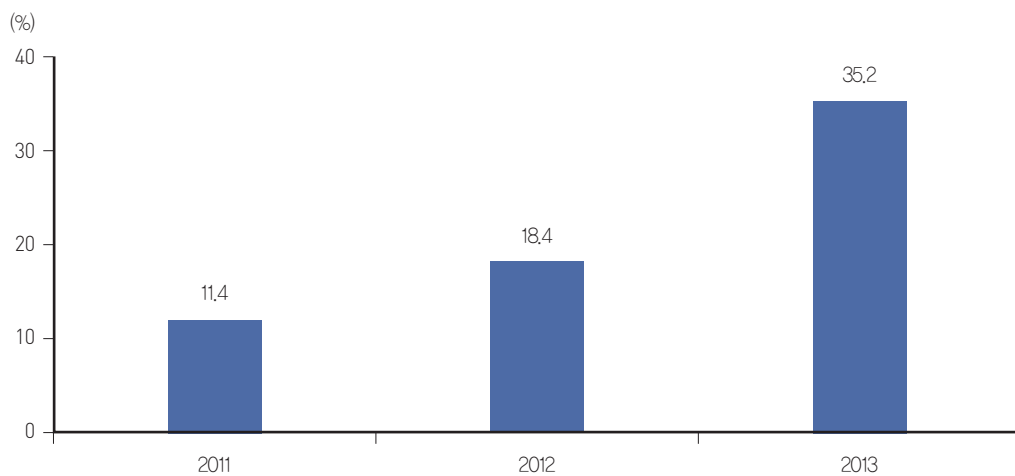
- ▶ 본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도에 3,000명의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고위험군이었음. 즉 전체응답자의 35.2%가 스마트폰중독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스마트폰중독위험에 노출됐음.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친 비율은 여학생들의 경우 42.6%였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28.6%였음.
 -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경우가 스마트폰중독위험성이 높았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중독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즉 저소득가정자녀의 스마트폰중독률이 높게 나타남.

【표 1】 배경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전체
전체		1942 64.7%	829 27.6%	229 7.6%	3000 100.0%
성별	남	1127 71.3%	359 22.7%	94 5.9%	1580 100.0%
	여	815 57.4%	470 33.1%	135 9.5%	1420 100.0%
교급별	중학교	1004 66.9%	386 25.7%	110 7.3%	1500 100.0%
	고등학교	938 62.5%	443 29.5%	119 7.9%	1500 100.0%
학년별	중1	372 76.4%	91 18.7%	24 4.9%	487 100.0%
	중2	315 63.8%	143 28.9%	36 7.3%	494 100.0%
	중3	317 61.1%	152 29.3%	50 9.6%	519 100.0%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전체
학년별	고1	301 59.8%	155 30.8%	47 9.3%	503 100.0%
	고2	312 62.0%	154 30.6%	37 7.4%	503 100.0%
	고3	325 65.8%	134 27.1%	35 7.1%	494 100.0%
가정 유형별	양부모 가정	1580 64.4%	687 28.0%	186 7.6%	2453 100.0%
	한부모 가정	282 68.4%	98 23.8%	32 7.8%	412 100.0%
	조손 가정	40 62.5%	20 31.3%	4 6.3%	64 100.0%
	기타	40 56.3%	24 33.8%	7 9.9%	71 100.0%
가정의 경제수준	하	134 60.9%	62 28.2%	24 10.9%	220 100.0%
	중	1619 64.3%	712 28.3%	186 7.4%	2517 100.0%
	상	189 71.9%	55 20.9%	19 7.2%	263 100.0%

-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중독률은 11.4%였고 2012년도 조사에서는 18.4%로 7% 포인트 증가하였음.
 - 앞서 언급한 대로, 본원 조사에서는 35.2%로 불과 1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함.



【그림 1】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추이(2011~2013)

■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실태 조사

- ▶ 사이버따돌림(혹은 사이버불링)은 이메일이나 채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함.
- ▶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의미하는 일명 스마트 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음.
- ▶ 본원이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정도를 살펴본 결과, 6.2%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최근 3개월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함.
 -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따돌림 경험은 3.1%, 문자는 2.8%, 사진 1.6%, 이메일 1.3%였음.
 -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음. 남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는 사진이나 이메일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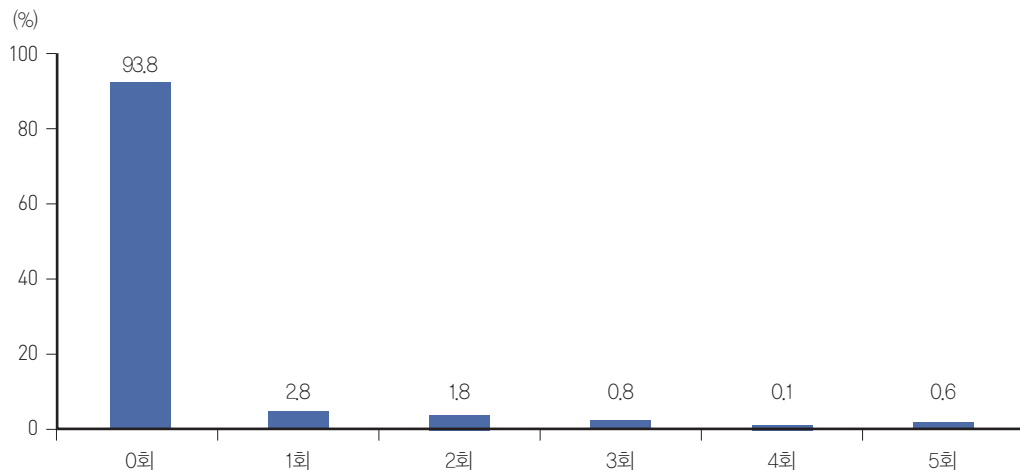
【표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단위 : %)

		스마트폰 채팅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사진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따돌리는 이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전체		3.8	3.1	2.8	1.6	1.3
성	남	3.6	2.7	2.8	2.5	2.1
	여	4.0	3.5	2.7	0.6	0.4
교급	중학교	5.0	4.0	3.5	1.4	1.3
	고등학교	2.6	2.1	2.1	1.9	1.2

* 각 문항에 대해 있다, 없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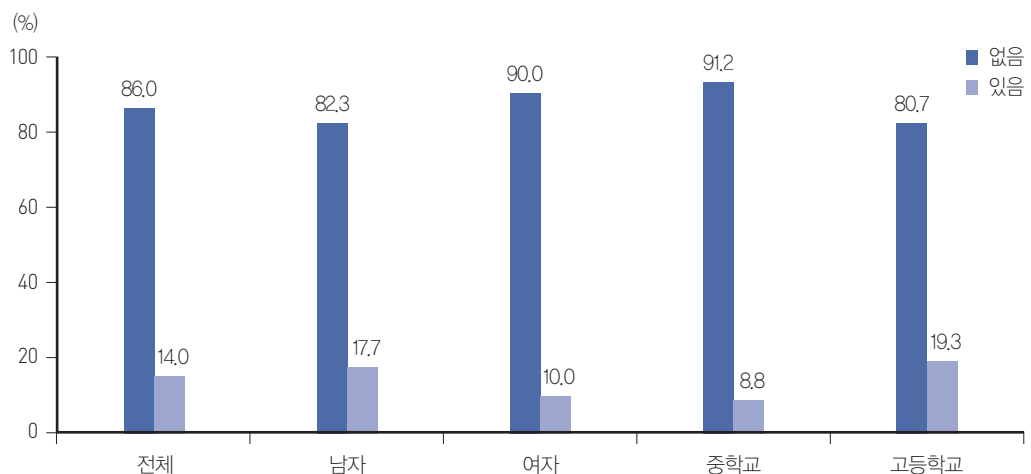
- ▶ 따돌림을 당한 횟수를 합쳐 빈도를 살펴본 결과, 따돌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8%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음.
-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은 2.8%였고 5회를 다 경험한 비율은 0.6%였음.



【그림 2】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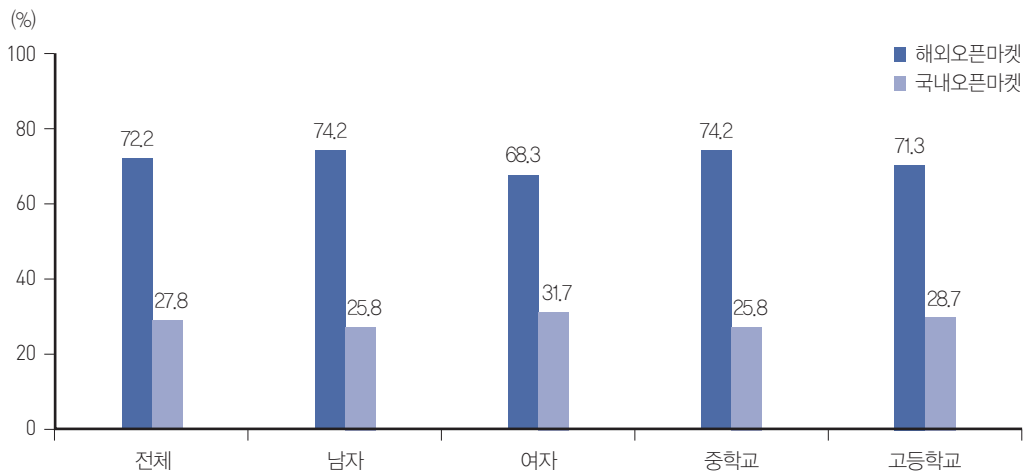
■ 성인용 앱 접촉실태 조사

- ▶ 최근 3개월간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앱(음란물, 도박 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그렇다고 답했음.
- 성별로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음.



【그림 3】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 앱 다운로드 여부

- ▶ 성인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앱들을 주로 어디서 다운로드 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음.



【그림 4】 성인용 앱 다운로드 경로

- ▶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보안관 중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25.3%였고 스마트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2.7%에 그쳤음.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았음.

【표 3】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

		둘 중 어떤 것도 이용 안함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스마트보안관 이용
전체		71.3	25.3	12.7
성	남	73.9	22.9	12.7
	여	68.3	28.0	12.7
교급	중학교	67.2	29.1	15.3
	고등학교	75.3	21.5	10.0

II. 스마트폰중독예방대책

■ 스마트폰이용규칙 제정

- ▶ 자녀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일정 시간을 제한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폰사용에 관한 규칙을 각자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 학교에서도 교사, 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폰이용과 관련된 학교규칙을 정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함.

■ 중독방지어플의 설치

- ▶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사용조절을 잘 못하고 있음.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중독방지어플을 사용하면 일정시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현재 시중에는 ‘모모’를 비롯한 스마트폰중독방지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음. ‘모모’의 경우 이용자가 특정앱을 잠그면 그 기간 동안 그 앱을 사용할 수 없고 잠금은 시간별, 요일별로도 가능함.

■ 스마트미디어교육의 내실화

- ▶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자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관련된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이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러한 단발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리터러시함양교육을 강화해야 함. 즉 스마트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줘야 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길러줘야 함.
 - 스마트폰관련 미디어교육도 한 한기에 한두 번 정도 이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 확대

- ▶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게임 등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에 비해 스마트폰중독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중독예방캠페인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사실, 그동안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터넷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정책들은 방송이나 지하철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되었음.
 - 그러나, 스마트폰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중독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
 - 24시간 늘 이용가능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향후 스마트폰중독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함.
 - ※ 최근 서울시는 ‘스마트폰 1-1-1’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번 한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출발했음. 시는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사용하기와 같은 스마트폰 에티켓을 발표하기도 했음.
 - 대중매체나 지하철 등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중독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함. 이러한 캠페인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같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함.

Ⅲ. 스마트폰을 통한 따돌림 대응방안

■ 부모 및 교사교육의 강화

- ▶ 부모의 경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초기에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이버불링의 기본개념이나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 학교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에 비해 온라인공간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불링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이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교사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채팅앱에 사이버불링신고 장치 설치

- ▶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채팅 앱에 사이버불링관련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함.

※ 이미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불링이나 자살 등의 글을 발견하면 바로 페이스북 본사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카카오톡 같은 채팅앱에도 이용자들이 사이버불링내용을 바로 본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 ▶ 미국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엄한 편임. 2013년 7월 현재 50개 중 49개 주가 불링법안을 가지고 있고 18개 주는 사이버불링을 포함시키고 있음.

– 가령, 루지애나주(Louisiana)의 경우 사이버불링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거나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 있음.

- ▶ 미국사회와 달리, 우리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는 사이버불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관련이 높음.

- ▶ 따라서, 사이버불링가해자도 물리적 폭력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바일가디언과 같은 사이버불링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 ▶ 중독방지어플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어플들이 개발되고 있음. 이 중 대표적인 어플이 모바일가디언임.
 - 부모가 회원가입후 자녀의 휴대전화에 모바일가디언이란 어플을 설치하면 자녀가 친구에게서 받는 욕설이나 따돌림 등의 내용을 수집해 부모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함.
 -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지를 부모가 파악할 수 있음.

IV.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차단 대책

■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설치 의무화

- ▶ 유해콘텐츠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청소년은 전체의 30% 가량에 불과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물 등 유해콘텐츠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적임.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치에 스마트폰구입시부터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함.
 - ※ 영국의 경우 보다폰(vodafone)이란 이동통신사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차단서비스를 설치하는 법을 안내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스마트폰사용을 독려하고 있음.
 - ※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폰구입시 차단프로그램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구입시 차단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경우 차단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스마트폰에 동시에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보안관과 같이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영국사례에서처럼 부모들이 쉽게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할 필요도 있음.

■ 안전한 스마트폰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매뉴얼 보급 및 확산

-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일선 학교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초등용, 중등용)을 배포한 바 있음.
 - 이 매뉴얼에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예방, 진단, 지도 및 상담 등의 생활지도방법이 담겨 있음. 하지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음.
 - ※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자 2010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바 있음. 이 지침서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유익한 사이트 정보제공, 위치정보서비스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실려 있음.
 - ※ 영국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북인 ‘Digital Parenting’을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vodafone, 2012).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우려스러운 스마트폰 내용을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음.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임. 이 책자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사회도 하루빨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사용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음.